

# “기업경기 하강기에 지역금융기관 대출 더 조여”

##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 보고서

1%p 하락 시 시중은행보다 0.3~0.4%p 추가 감소  
자금조달 비용 높고 특정 제조업비중 집중된 영향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 매출이 감소할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 속도가 전국 단위 금융기관보다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3일 임현준

전남대학교 교수와 윤장석 조사역이 공동 연구한 ‘기업의 매출충격에 대한 지역 금융 반응의 이질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합 대출자료를 활용, 기업 매출 변동이 금융

기관의 대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 기업들의 매출증가율이 1%p 하락하면 지방은행의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액보다 평균 0.3~0.4%p 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금융기관일수록 기업 실적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대출을 조기에 축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남 권과 대구·경북권의 대출 민감도가 타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해당 지역 금융기관의 규모가 영세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재무 여건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자산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으며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기업 매출 감소 시 대출 축소 폭이 컸다.

자본 여력과 유동성 완충 능력이 부족한 지역 금융기관이 경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금융이 지역 기업과의 관계 금융을 통해 경기 침체기에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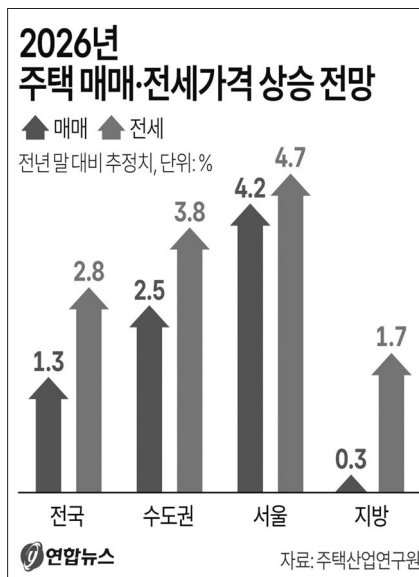
연구진은 지역 금융기관이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자본 규제 부담, 특정 지역·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조로 인해 경기 하강기에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역금융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

다. 자본 및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 자금조달 구조 다변화,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규제·감독 체계 마련, 공공부문 예치금의 지역 금융기관 배분 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현준 교수는 “지역금융이 경기 하강기마다 신용 공급을 줄이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 기업과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지역 금융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내년 집값 전국 1.3% 상승”

내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1.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집값은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국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0년 동안 명목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이고, 작년 9월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또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약 60만호(정부 추산치)의 착공 물량 부족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내년에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 격지수를 활용해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각각 2.7%, 6.6%로 추정했다. 내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올해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주산연은 내년 전세값은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지방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특히 주산연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한 월세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는 수도권에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주택 매매량은 올해(68만7000건) 대비 5.4% 감소한 65만건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의 경우 올해 38만6000호에서 내년 40만호로, 착공의 경우 올해 27만8000호에서 32만호로, 분양의 경우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다.

그러나 내년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000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 전남개발공사, 올해 우수협력업체 7곳 선정

안전·기술·사회적가치 등  
분야별 평가 우수기업 지정  
상생경제 2차 확산 기업 포함

안전·기술·사회적 가치 성과를 기준으로 한 전남개발공사의 협력업체 평가에서 올해 7개 중소기업이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다. 공사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연계해 협력기업과의 상생경영을 본격화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3일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JNDC 우수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협력 중소기업 7 곳을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했다.

우수협력업체 지정제도는 전남개발공사 ESG 경영 실천과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사와 협력 관계를 맺은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기술 혁신성, 정부 정책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내부 부서 추천과 심사를 거쳐 토목, 전기·통신 등 6개 분야에서 △동산 엔지니어링 △세원건설 △리스크제로 △근남정보기술 △한국기술개발 △라온북



전남개발공사는 23일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JNDC 우수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협력 중소기업 7곳을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했다.

지기전사업단 △삼성OA시스템 등 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오프 경관보행교 건설,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SLA 기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사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공정관리 능력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상생경제 2차 확산에 기여한 기업이 포함돼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적용, 계약보증금 면제, 인지세 전액 지원, 협상계약 시 가격 확대, 정부 포상 공모 우선 추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협력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개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해양조와 재단법인 보해장학회는 23일 지역 인재 40명에게 장학금 4200만원을 전달했다

## 보해양조, 지역 인재 40명에 장학금 전달

### 39년 전 장학생 박득원 원전제주본부장, 후배 격려

보해양조와 재단법인 보해장학회는 23일 지역 인재 40명에게 장학금 4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등 7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대학생이다. 장학금은 이연희 창해예단을 대표와 김인주 보해양조 감사의 추가 기탁금이 더해져 마련됐다.

특히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난 1986년

보해장학회 지원을 받았던 제6회 장학생 박득원 한국전력제주본부장이 맨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보해장학금을 받은 박 본부장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학창 시절 학비가 없어 옷집에서 돈을 빌려가며 겨우 학교를 다녔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또 4년 전 장학금을 받고 현재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활동 중인 제39·40회 장학생 이동민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은 “설립자고 임광형 회장이 강조했던 인재 육성의 뜻이 옷집에서 돈을 빌려가며 겨우 학교를 다닌 속에서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지역사회의 빛나는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

## 전남 게임기업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성료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 도내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마케팅(일반지원)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 게임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게임 번역·더빙, 해외 홍보 마케팅, LQA(언어 품질 검수) 등 실질적인 마케팅 과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흥원은 올해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600만원 이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 결과, 만능은 게임 ‘남남떡볶이’의 영어·일본어 더빙을 완료하며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갖췄고, 주식회사 팜은 ‘더 고스트 스팟’을 10개국어 이상으로 번역해 해외 마케팅 활용도를 높였다.

니트로는 ‘자산아보’를 대상으로 글로벌 홍보자료 제작과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해 해외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더로아이즈는 ‘로고인무림’의 번역

과 LQA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렸다.

진흥원은 이번 지원이 단순한 단기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전시회 참가와 해외 퍼블리셔 협업, 추가 마케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웅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 게임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제작부터 마케팅, 글로벌 전시기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2025 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게임 제작과 마케팅, 인제 양성,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남 게임산업 생태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마트사업호남지사·호남농산물물류센터·호남자재유통센터 등

## 농협경제지주, KOSHA-MS 인증 취득

농협경제지주는 호남권 물류센터 3곳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KOSHA-MS 인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곳은 스마트사업 호남지사 △호남농산물물류센터 △호남자재유통센터 등 3개소다. 농협경제지주는 앞서 지난해 수도권 물류센터 3곳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영남권

물류센터 3곳으로 인증을 확대해 전국 물류센터의 KOSHA-MS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의식 및 신뢰도 제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서홍 농협경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 여수광양항만공사, 연말 산단 근로자 응원

### 여수세계박람회장 희망나눔 콘서트 열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2일 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장 희망나눔 연말 콘서트’가 뜨거워 호응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연말 콘서트는 여수·광양 국가산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근로자들과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인 토요일에는 여수MBC라디오 프로그램 ‘박성언의 음악식당’의 보이는 라디오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싱어송 라이터 장들레, 이찬솔 등이 출연해 삶과 일상

을 주제로 한 음악과 이야기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MBC 전국 TV방송 프로그램 ‘트로트 클라스’ 공개방송이 펼쳐졌다. 흥겨운 무대와 친근한 곡으로 공연장이 웃음과 박수갈채로 가득 채워졌으며 관람객들이 하나 둘 축제의 장이 연출됐다.

항학범 사장 직무대행은 “연말을 맞아 가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